

파라과이

◆ 파라과이, 2002년 경제성장에 어려움 많아

지난해 파라과이 경제는 국내적으로는 재정적자가 2억 200만 달러에서 8,000만 달러로 65.6%나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IMF와 합의한 8% 수준을 유지하는 등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농업 분야, 특히 대두(大豆)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지난 4년 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0.5%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정치 불안에 따른 투자 위축, 공공부문 개혁부진,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자금경색,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등은 여전히 파라과이 경제의 장기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아르헨티나 위기에 따른 파급 효과 지속

파라과이의 對아르헨티나 수출은 총수출의 약 10%를 차지하였으나, 2001년 4/4분기 이후에는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수치는 35%에 이르는 對브라질 수출비중에 비해 매우 낮아,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지난 1998년 브라질 위기에 비해 최근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기대와 달리 아르헨티나 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2001년 중 파라과이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³⁾은 중남미 국가들 중 최하위인 9,000만 달러에 그쳤는데, 이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볼리비아의 6억 5,000만 달러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이다. 여기에다 아르헨티나 거주 파라과이인들의 귀국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폐소貨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로 인한 파라과이 농산물과 제조업 분야의 수출경쟁력 하락이 동국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아르헨티나 위기에 따른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사회 불안 요인 상존

2001년 11월 18일 치러진 파라과이 지방선거에서 콜로라도당(PC)의 리에라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56% 득표로 전시장인 필리솔라 후보를 누름으로써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당 후보가 수도 아순시온의 시장으로 당선되는 사례를 남겼다. 그러나 콜로라도당이 아순시온, 페르난도 델라모라, 루게 등 주요 도시에서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석 수에서는 야당에 뒤져 효율적인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6년 쿠데타와 1999년 아르가냐 부통령 암살음모 혐의를 받고 브라질로 망명한 리노 오비에도(Lino Oviedo) 장군이 귀국하여 2003년 대선³⁾에 출마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국에 새로운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오비에도는 브라질에서도 자신의 계보인 UNACE 재건을 위해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직도 여당 내에서 막강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곤살레스 마치(Gonzalez Macchi) 대통령은 그가 귀국하는 즉시 체포해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적으로도 부총리제의 폐지, 단원제, 감사원의 권위 격상, 공공자금 지출에 대한 감사 등의 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AISC)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브라질과 인접한 북동부 지방에서의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불안요인 이외에도 최근 곤살레스 대통령이 IMF와 합의한 조세 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해 공공요금⁶⁾인상 방침

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불만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성장률은 소폭 증가에 그칠 듯

국내외 경제전망을 종합해볼 때 2002년 파라과이 경제는 2001년과 마찬가지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동국 중앙은행이 대두와 면화의 순조로운 작황에 따른 수출 증대, 통신·에너지 분야의 민영화 추진 성공을 전제로 2002년에 2%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의 불안한 남미 지역 경제상황과 국내 정치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 예상치는 다소 낙관적으로 보인다.

우선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외국 특히 아르헨티나에 취업한 파라과이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이 감소하고, 관광수입도 크게 줄어들어 외화 유입액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메르코수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어, 국영 통신공사(Copaco)⁷⁾와 국영 상·하수도공사(Corposana)⁸⁾의 민영화 성사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총 교역량의 70%에 달하는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대한 수출 전망 역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농산물 가격이 4년째 하락세를

- 3) 1998년 브라질 외환위기 이전에 3억 3,000만 달러를 상회했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9,600만 달러, 2001년에는 9,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음.
- 4) 파라과이 통계청(DGEEC)은 2001년 현재 파라과이인의 35.8%가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으며, 이 수치는 1999년 이후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5) 현재 2003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두아르메 프루토스(Duarte Frutos)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이 유력시됨.
- 6) 파라과이 정부는 3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10% 인상되며 4월부터는 매월 2.3%씩 인상되어 금년 한해 동안 총 누적인상률은 30%가 될 것이라고 발표.

보이고 있어, 동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두 수출의 호조세가 올해도 계속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여기에다 1990년대 초 파라과이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해왔던 Ciudad del Este와 Encarnacion 지역의 국경무역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의 '파라과이 면세품 수입 감축안' 발표 이후 침체되고 있어 외화 유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올해 파라과이의 경제성장은 0.2%에 그칠 것이며 경상수

지 적자폭도 전년도의 GDP 대비 3.2%에서 5.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금년도 파라과이 경제는 대외적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영향 차단, 국제 농산물 가격의 안정여부, IMF와 5,000만 달러의 추가 금융지원 협상 성공 여부와, 대내적으로는 2003년 5월 대선 및 오비에도 장군의 거취문제, 민영화의 성사 가능성 등 제 변수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崔 盛 圭】

-
- 7) 파라과이 정부는 Antelco(Administracio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를 정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Copaco(Corporacion Paraguaya de Comunicacion)로 이름을 변경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한편, 지난 12월 산탄데르 은행(BSCH)은 Copaco의 가치가 7년 전의 3억 9,000만 달러에서 78% 감소한 8,800만 달러로 하락했다고 발표하였음.
 - 8) 수도 아순시온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상·하수도 관리를 담당해온 국영 상·하수도공사 (Corporacion de Obras Sanitarias)의 민영화 사업에 현재 프랑스의 Vivendi사와 스페인의 Canal del Isabel 11사가 매입의사를 밝힌 상태임.